

가온딧도¹⁾ 소천국²⁾ 알손당[下松堂里] 고부니³⁾ 를³⁾ 솟아나시고,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벡몰래
왓[白沙田]디서 솟아나신 벡주또마누라.⁴⁾ 인간 탄생(誕生)해야 천기(天機)를 집떠보니 천상베필
(天上配匹) 웰 베위(配位)가 조선국(朝鮮國) 제주도 손당리(松堂里) 탄생해야 사는 듯하니. 벡주가
제주 입도(入島)해야 손당릴 쫓아가서 소천국을 상멘(相面)해야 천상베필(天上配匹)이 됩데다.

아들을 낳는데 우선 오형제(五兄弟)를 탄생⁵⁾하고 으숃⁶⁾ 아들[第六男]은 복중(腹中)에 있는다.
벡주님이 말씀⁷⁾하⁸⁾워,

“소천국님아 아긴 영⁵⁾ 많이 탄생⁹⁾하는디 놀아서 살 수 이십네까? 이것을 어찌¹⁰⁾ 민 질릅네까?¹¹⁾
농¹²⁾事(農事)를 지읍소서.”

오봉이굴왓⁷⁾ 돌아보니 논씨도⁸⁾ 아옵섬지기[九石落] 피씨[稷種]도 아옵성지기 시니⁹⁾ 셀 물고¹⁰⁾
잠대를¹¹⁾ 지와서 소천국이 밧을 간다.

벡주님이 정심(點心)을 출리는디. 국 아옵동이 밥 아옵동이. 이구십팔 여레듭[十八]동이 밧 가
는 디 가지고 가시니.

“정심이랑 쉐질메¹²⁾ 덕거뒹¹³⁾ 누려갑서.”

벡주님은 집으로 돌아오고 소천국이 밧을 갈더니.

“밧가는 선관(仙官)님아”

태산절¹⁴⁾ 중이 넘어가단.

“잡수던 정심이나 이시민 혼 술 줍서. 시장을 멀허영¹⁵⁾ 가겠수다.”

먹은 덜 다 먹으리엔.

“그러¹⁶⁾건 쉐질멜 들려두고 보아라.”

들려두고 보니 궂 아옵동이 밥 아옵동이 이시난 태산절 중이 다 들려먹고 돌아나분다.

소천국이 밧을 갈단 베가 고프난¹⁶⁾ 정심이나 먹저.

보니 혼술도 웃이 문짝¹⁷⁾ 들려먹고 돌아나부렀구나. 소천국은 시장허여노니 훌수웃이 밧갈던
농웨(農牛)를 뜨려 죽여 잡아가지고 새비남¹⁸⁾ 적고지예¹⁹⁾ 괴기를 꿰멍 구워 먹둬 초요길(初療飢)

1) 가온딧도 : 가운데 쪽 좌정(坐定)한 당신(堂神). 한 당 내의 당신의 좌정 위치 또는 한 마을 안의 여러 당의 위치에 따라
'웃도' '가운딧도' '알도'로 나타냄.

2) 소천국 : 하송당신(下松堂神)으로서 부신(夫神).

3) 고부니³⁾ 를 : 구좌면 송당리(舊左面松堂里)의 지명. 고부라진 마루란 뜻.

4) 벡주또마누라 : 상송당신(上松堂神)으로서 부신(婦神).

5) 영 : 이렇게.

6) 질릅네까 : 기릅니까.

7) 오봉이굴왓 : 송당리(松堂里)의 지명.

8) 논씨 : 볍씨.

9) 시니 : 있으니.

10) 셀 물고 : 소(牛)를 물고.

11) 잠대 : 쟁기.

12) 쉐질메 : 소길마.

13) 덕거뒹 : 덮어두고.

14) 태산절 : 절 이름인데 미상.

15) 멀허영 : 멀리해서. 면(免)해서.

16) 고프난 : 고프니.

17) 문짝 : 모두.

18) 새비남 : 찔레나무.

19) 적고지 : 적꼬치.

못 멀려 묵은 각단밧데레²⁰⁾ 바레여 보니²¹⁾ 가망훈²²⁾ 암쉐[牤牛]가 기염시니²³⁾ 그 놈을 심어다
가²⁴⁾ 잡아 먹으니 요기를 멀렸더라.

쉐머리[牛頭]도 두게요, 쉐가죽[牛皮]도 두게요, 벳부기로²⁵⁾ 밧을 갈암더니 벽주님이 완 보고,
“아, 거, 소천국님아 어떻²⁶⁾ 난²⁶⁾ 벳부기로 밧을 갑네까?”

“그런 것이 아니고 태산절 중이 넘어가단 그만 국 아옵동²⁷⁾ 밥 아옵동 이구십팔 여례듭동을
다 들러먹고 돌아나부니, 훌수웃이 밧갈단 쉘 잡아 먹고 놈의 쉐[牛]²⁸⁾지 두머리를 잡아 먹어 요
기를 멀렸노라.”

벽주님이 말씀²⁹⁾ 했제.

“당신 쉐 잡아 먹은 건 떱떳한 일이나 놈의 쉐 잡아 먹어시니 쉐도독놈이 아니냐? 오늘부떠
살렴을²⁸⁾ 분산(分散)하자.”

벽주님은 부름 우으로²⁹⁾ 올라사고 소천국은 부름 알[風下]로 누려사서, 벽주는 당오름³⁰⁾ 좌정
(坐定)하고 소천국은 알손당[下松堂] 고부니³¹⁾를 좌정흡데다.

소천국이 베운 것은 총질 수농질을³¹⁾ 베와시니 지리 바른³²⁾ 마상총(馬上銃)에 귀약통³³⁾ 남늘
개³⁴⁾ 둘러메고 산천(山川)의 올라가서 대각록(大角鹿) 소각록(小角鹿) 공작(孔雀) 노리[獐] 사심
[鹿] 대듯[大猪] 애듯[兒猪] 많이 맞혀 헤낭곳 굴왓디³⁵⁾ 정동칼쳇 뜰을³⁶⁾ 소첩을 삼아서 괴기를
술아 먹고 삽데다.

벽주님이 베인 아기가 나서 식설 나니 홍걸례로³⁷⁾ 얼애를 둘러메여 소천국을 촛젠 헤낭골굴왓
을 들어가 보니, 농막(農幕) 쏘곱에서³⁸⁾ 네가 나난 바레여 보니 소천국이 있었더라.

벽주님이 아기를 부려노니, 아바지 삼각쉬(三角鬚)를 심어 등기멍³⁹⁾ 아바지 가심[胸]을 짓두드
리는구나.

“이 주식 벤 때에도 석신이⁴⁰⁾ 바웨여⁴¹⁾ 살렴을 분산(分散)허연게⁴²⁾ 나도 이런 낫분 행동을
하니, 죽일려 했제 츄마 죽일 수는 엊고 동이와당데레⁴³⁾ 띠와 불라.”

무쉐설캅[鐵石匣]에 식설 난 아들을 담안 통쉐를⁴⁴⁾ 체와가지고 동이와당으로 띠웁데다.

20) 각단밧데레 : 땅밭으로.

21) 바레여 보니 : 바라보니.

22) 가망훈 : 까만(黑).

23) 기염시니 : 기고 있으니.

24) 심어다가 : 잡아다가.

25) 벳부기 : 배때기.

26) 어떻²⁶⁾ 난 :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27) 아옵동 : 아홉동이.

28) 살렴을 : 살림을.

29) 부름 우으로 : 바람 위쪽으로.

30) 당오름 : 송당리(松堂里)의 악명(岳名).

31) 수농질 : 사냥질.

32) 지리 바른 : 길이 바른. 총열이 바른. 조준이 잘 되는의 뜻.

33) 귀약통 : 화승총(火繩銃)의 화약통.

34) 남늘개 : 남날개. 화약. 탄알 등을 넣는 그릇.

35) 헤낭골 굴왓 : 송당리(松堂里)의 지명.

36) 정동칼쳇 뜰 : 정동갈 집엣 딸.

37) 홍걸례 : 걸렛배. 곧 아기 없는 멜빵. ‘홍-’은 조율을 위한 무의미한 음.

38) 쏘곱에서 : 속에서.

39) 심어 등기멍 : 잡아 당기며.

40) 석신이 : 미상.

41) 바웨여 : 바웨다=무슨 일이 기회가 맞지 않아 그르친다.

42) 분산(分散)허연게 : 분산하던데.

43) 동이와당데레 : 동해바다로.

44) 통쉐 : 자물쇠.

요왕국을 들어가서 무우남[珊瑚樹] 상가지[上枝]에 가 무쉐설캅이 걸어지니 무쉐설캅에서 풍문조화(風雲造化)가 나온다. 든변 난변이⁴⁵⁾ 쐐여지니 요왕국대왕(龍王國大王)이 말씀하둬.

“큰뜰아기 나고 보라. 든변 난변이 쐐여지느냐?”

“아무것도 없습네다.”

“셋뜰[次女]아기 나고 보라. 든변 난변이 쐐여지느냐?”

“아무것도 없습네다.”

족은뜰[末女]아기 나고 보라. 든변 난변이 쐐여지느냐?”

족은뜰아기 나고 보니

“무우남[珊瑚樹] 상(上)가지에 무쉐설칵이 걸어졌습네다.”

“큰뜰아기 누리우라.”

“훈귀⁴⁶⁾ 둘싹⁴⁷⁾ 못⁴⁸⁾ 허쿠다.”⁴⁸⁾

“셋뜰아기 누리우라.”

“한귀 둘싹 못⁴⁸⁾ 허쿠다.”

“족은 뜰아기 누리우라.”

족은뜰아긴 오끗⁴⁹⁾ 들련⁵⁰⁾ 누리와 노니,

“큰뜰아기 문 읊리라.”⁵¹⁾

못 읊린다.

“셋뜰아기 문 읊리라.”

못 읊린다.

“족은뜰아기 문 읊리라.”

족은뜰아긴 꽃댕여⁵²⁾ 신은 발로 삼식번을 돌아가멍 둘러 차니 절로 설강 읊려진다.

옥(玉) ? 뜬 도령님이 책(冊)을 혼 상(床) ?득이 받고 앗았고나. 요왕국대왕이 말씀하둬.

“어느 국(國) 사느냐?”

“조선(朝鮮) 남방국(南方國) 제주도 삽네다.”

“어찌⁴⁹⁾ 허니 왔느냐?”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의 국난(國亂)이 난젠⁵³⁾ 허근테⁵⁴⁾ 세벤(世變) 막으레 가단 풍파(風波)에 쫓겨서 요왕국을 들어 왔습네다.”

요왕국이 생각하둬. 천하맹장(天下名將)인 줄 알고,

“큰뜰 방으로 듭서.”

데답(對答)이 전무(全無)하고,

“셋뜰 방으로 듅서.”

45) 든변 난변 : 여러 가지 변.

46) 훈귀 : 한 귀. 한 모퉁이.

47) 둘싹 : 달싹. 물건이 조금 들리는 모양.

48) 못⁴⁸⁾ 허쿠다 : 못하겠습니다.

49) 오끗 : 물건을 아주 가볍게 드는 모양.

50) 들련 : 들어서.

51) 읊리라 : 열어라.

52) 꽃댕여 : 꽃 당해(唐鞋).

53) 난젠 : 났다고.

54) 허근테 : 하길래.

데답이 전무^호고,

“족은뜰 방으로 듭서.”

족은뜰 방으로 들어간다.

족은뜰이 상(床)을 추리^워 칠첩반상궐⁵⁵⁾ 출려 들어가 드리니 눈을 거듭떠바레질⁵⁶⁾ 아니^훈다.

족은뜰이 말씀^호둬,

“조선국(朝鮮國) 장수(將帥)님아 뭣을 잡습네까?”

“내 국(國)은 소국(小國)이라도 돗[豚]도 전머리를⁵⁷⁾ 먹고 쉐[牛]도 전머리를 먹고 훈다.”

아바님전 여쭈오니 요왕국대왕(龍王國大王)이 말씀^호시둬.

“내 기구를 가져서 사위손^호나 못 데접^호겠느냐?”

날마다 돗을 잡고 쉐를 잡아가니 동창(東倉) 서창(西倉)이 다 비여간다. 요왕국이 생각^호니 사위손을 두어뒀당⁵⁸⁾ 요왕국이 망흘 듯^호다.

“예^子(女子)란 건 출가웨인(出嫁外人)이니, 냄편(男便) 뜰⁵⁹⁾ 가거라.”

그 어간(於間)의 유테(有胎)가 웨였는디, 오누이[男妹] ?찌⁶⁰⁾ 양인(兩人)을 무쉐설캅(鐵石匣)에 들여 놓아서 물 뱃것으로⁶¹⁾ 내띄운다.

강남천제국 벡몰레왓[白沙田]디 가 무쉐설캅이 걸어져 풍문조홰(風雲造化)를 부리니, 밤의는 초롱햇불[燭籠燭火]이 등성(登盛)하고 낮의는 글 읽는 소리가 탕천(撐天)해야 천주국(天子國) 안에 풍문조홰를 자꾸 들여, 천주님이 말씀^호시둬.

“어찌 궁궐에 풍문조홰가 만^호느냐? 하인(下人)을 명령(命令)해야 해벤(海邊)을 돌아보라.”

“돌아보니 무쉐설캅이 올랐습네다. 이 무쉐설캅 쏘곱에서 풍문조酡가 일어납네다.”

“황봉^소를 불르라.”

봉^소(奉事)에게 즘(占)을 치니 무쉐문을 열젱^호민⁶²⁾ 천주(天子)님이 모대각띠[帽帶角帶]를 촐리고 상촉(香燭)을 헤야 북방절[北方拜] 손베(四拜)를 드려사 문 읊려진다 훈다. 훌 수 웃이 천주님이 모대각띠를 촐리시고 북방수베(北方四拜)를 디리니 무쉐문이 읊려진다.

옥[?]뜬 도령님과 얘기씨가 앗았거늘.

“어느 국(國) 삽네까?”

“조선 남방국 제주도 삽네다.”

“어찌허여 오셨습네까?”

마침 그 때 북적(北賊)이 강성(強盛)해야 천주국을 치젠^호는 중인디.

“소장(小將)은 이디⁶³⁾ 오기를 남북적(南北賊)을 첨파(捷破)하고 세벤(世變)을 막으레 왔습네다.”

호니 천주가 홀목을⁶⁴⁾ 잡으시고 궁안[宮內]에 입시(入侍) 시겨, 무쉐투구 가보옷[甲衣]에 어낼도(偃月刀) 비수금(匕首劍) 나모활 보레활⁶⁵⁾ 기치창금(旗幟槍劍) 내여주시고 억만대벵(億萬大兵)

55) 칠첩반상궐 : 7첩반상기를.

56) 거듭떠바레질 : 거들떠보지를.

57) 전머리를 : 전(全)마리를.

58) 두어뒀당 : 두어뒀다가.

59) 뜰 : 따라.

60) 오누이(男妹) ?찌 : 같이.

61) 뱃것으로 : 바깥으로.

62) 열젱^호민 : 열자고 하면.

63) 이디 : 여기.

64) 홀목을 : 팔목을.

65) 보레활 : 활의 일종.

을 내여주시니 싸옴⁶⁶⁾ 헤 나간다.

체암[初]에 들어가서 머릿박 둘 돋은 장설 죽이고, 두번재 들어가서 머릿박 셋⁶⁷⁾ 돋은 장설 죽이고, 쇠번재 들어가서 머릿박 낫 돋은 장설 죽이니, 다시는 데양(對抗)할 장수가 엉어 세벤도원수(世變都元帥)를 막으니, 대히(大喜)해야.

“이러한 장수는 천하에 엉는 장수로다. 땅 훈착⁶⁸⁾ 물 훈착을 베여 주건 땅세[地稅] 국세(國稅) 받아 먹엉 삽서.”

“그도 마웨다.”⁶⁹⁾

“천금상(千金賞)에 만호후(萬戶侯)를 보(封)하라.”

“그도 마웨다.”

“그레민 소원을 말하라.”

“소장(小將)은 본국(本國)으로 가겄습네다.”

관관솔을⁷⁰⁾ 베여가지고 전선(戰船) 훈 척을 무어 무나무[珊瑚] 양석(糧食)을 훈베 시끄고⁷¹⁾ 벡 만군수를 데동(帶同)하여 조선국(朝鮮國)을 나온다.

정상도(慶尙道)라 칠십칠관(七十七館) 전라도라 오십삼관으로, 일제주(一濟州) 이거저(二巨濟) 삼남에(三南海) 수진도(四珍島) 오광화(五江華) 육관도(六莞島)로 헤야 제주로 들어온다.

제주바당 베를 노니 들물[滿潮]은 떨어지고 쓸물[干潮]을 만나서 소섬[牛島] 진질깍으로⁷²⁾ 베를 대여가니, 소섬서 좌우(左右)에서 섭선이⁷³⁾ 나와가지고 그 베를 끊어다가⁷⁴⁾ 소섬 모살내기로⁷⁵⁾ 끊어 올리니 궤눠깃한집⁷⁶⁾이 예물⁷⁷⁾ 와서 영기(令旗)를 세와 소섬을 둘러 보니 물광⁷⁸⁾ 쉐[牛]만 가쳐서⁷⁹⁾ 맥일 디로다. 물섬으로⁸⁰⁾ 들어가자.

종달리(終達里)⁸¹⁾ 두머니개⁸²⁾ 소곰[鹽]만 허여 풀아 먹을 디로다. 붉은작지로⁸³⁾ 한작지로⁸⁴⁾ 멀미오름⁸⁵⁾ 징쟁이오름⁸⁶⁾ 웃드랑쉬 알드랑쉬⁸⁷⁾ 비즈남곳[榧子林]⁸⁸⁾ 올라사 천아운동(天下運動)하고 지아요동(地下搖動)하게 방포일성(放砲一聲)이 탕천(撐天)하니 아바지 소천국과 어머니 벡주님이 하님[下女]보고 말을 헤둬.

“어찌 이렇게 방포일성(放砲一聲)이 크게 나느냐?”

66) 싸옴^{하례} : 싸움하리.

67) 셋 : 셋.

68) 훈착 : 한 조각.

69) 마웨다 : 맙니다. 싫습니다의 뜻.

70) 관관솔 : 관솔. ‘관-’은 조운음(調韻音).

71) 시끄고 : 싣고.

72) 진질깍 : 구좌면 연평리(舊左面演坪里 :牛島)의 해변명.

73) 섭선이 : 작은 배?

74) 끊어다가 : 끊어다가.

75) 모살내기 : 우도(牛島) 해변의 지명.

76) 궤눠깃한집 : 궤눠깃 당신 곧 주인공.

77) 예물 : 우도(牛島) 해변의 지명.

78) 물광 : 말(馬)과.

79) 가쳐서 : 가두어서.

80) 물섬으로 : 제주 본도(本島)를 뜻함.

81) 종달리(終達里) : 구좌면의 이명(里名).

82) 두머니개 : 종달리(終達里)의 포명(浦名).

83) 붉은작지 : 종달리(終達里)의 지명 ?

84) 한작지 : 종달리의 지명?

85) 멀미오름 : 종달리의 악명(岳名).

86) 징쟁이오름 : 구좌면의 악명(岳名).

87) 알드랑쉬 : 구좌면 세화리(細花里)의 악명(岳名).

88) 비즈남곳(榧子林) : 구좌면 평대리(坪垈里)의 비자 자생림(榧子自生林).

하님이 말씀하셨다.

“식설[三歲]적 죽으렌 무쉐설캅[鐵石匣]에 띠운 상전(上典)님이 아방국을 치젠 들어옵네다.”

“에, 이 년, 고약훈 년이라. 그 어간(於間)의 무세설캅이 다 녹안⁸⁹⁾ 엊어져실 텐디 으쌰챘 아들 [第六男]이 살아오기가 만무하다.”

흐더니, 방포일성(放砲一聲) 흐매 으쌰챘 아들이 들어오니, 아바지도 민수와서⁹⁰⁾ 알손당(下松堂) 고부니 모를⁹¹⁾ 가 죽어 좌정(坐定)하고, 어머님은 공작머리⁹²⁾ 짚어지고 겁나 든단 당오름⁹³⁾ 가 죽어 좌정해야 정월 열사울날[十三日] 대제일(大祭日) 받아 먹고.

아바지 생신 때⁹⁴⁾ 사농질을⁹⁵⁾ 잘 허시고 사농괴길 조와해시니, 각 모을로 각리(各里)마다 수통(四通) 돌려 일포수(一砲手)덜을 다 불러가지고 사농질을 혔다. 대각록(大角鹿) 소각록 공작(孔雀) 노리[獐] 베오⁹⁶⁾ 사심[鹿] 대듯[大猪] 애듯[兒猪] 많이 잡아서 아바니전 제(祭)를 지네여 두고, 방광오름⁹⁷⁾ 가 방광을⁹⁸⁾ 식번 쳐서 벽만군수(百萬軍士)를 허터두고,

“벽만군수는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라.”

작별(作別)해야.

“한라연산(漢拏靈山)이나 구경가자.”

평앗인존제 매앗인존제⁹⁹⁾ 복오름 체오름¹⁰⁰⁾ 두리앞벵뒤¹⁰¹⁾ 뒷곳으로¹⁰²⁾ 알소남당¹⁰³⁾ 웃소남당¹⁰⁴⁾ 테역장오리¹⁰⁵⁾ 가서 물먹고 좌우석을¹⁰⁶⁾ 둘러 보니,

여기가 맹난장수만¹⁰⁷⁾ 날 듯하다. 보름 우로 쫓아가자.

부름 우히 어딜려냐. 짐녕리(金寧里)가 부름 우히로다.

웃소남당으로 알소남당으로 두리앞벵뒤로 지례기텐밧¹⁰⁸⁾ 벽캐골왓¹⁰⁹⁾ 서리왓¹¹⁰⁾ 오름새끼¹¹¹⁾ 한가름¹¹²⁾ 어대오름¹¹³⁾ 썰곳¹¹⁴⁾ 만젱이거멀¹¹⁵⁾ 남산거멀¹¹⁶⁾ 어육돈은못¹¹⁷⁾ 희연못¹¹⁸⁾ 화수리¹¹⁹⁾

89) 녹안 : 녹아서.

90) 민수와서 : 무서워서.

91) 고부니 모를 : 송당리(松堂里)의 지명.

92) 공작머리 : 길게 늘어뜨린 머리.

93) 당오름 : 송당리의 지명.

94) 생신 때 : 생시(生時)인 때.

95) 사농질 : 사냥질.

96) 베오 : 미상.

97) 방광오름 : 송당리(松堂里)의 악명(岳名).

98) 방광 : 시왕맞이 때 죽은 영혼이 저승에 잘 가게 기원하는 한 제차명(祭次名). 이 방광 칠 때는 징을 치면서 창(唱)하므로 징을 침을 방광친다고도 함. 여기서는 후자의 뜻.

99) 매앗인존제 : 조천면 선흘리(朝天面善屹里)의 지명.

100) 체오름 : 구좌면 덕천리(舊左面德天里)의 악명(岳名).

101) 두리앞벵뒤 : 교래리(橋來里) 앞쪽 벌판.

102) 뒷곳 : 교래리(橋來里) 뒤쪽 숲 이름.

103) 알소남당 : 하송당(下松堂).

104) 웃소남당 : 상송당(上松堂).

105) 테역장오리 : 한라산 중허리의 소명(沼名).

106) 좌우석 : 좌우석(左右席).

107) 맹난장수 : 이름난 장수.

108) 지례기텐밧 : 구좌면 동복리(舊左面東福里)의 지명.

109) 벽캐골왓 : 조천면 선흘리(朝天面善屹里)의 지명.

110) 서리왓 : 구좌면 덕천리(舊左面德泉里)의 지명.

111) 오름새끼 : 덕천리의 악명(岳名).

112) 한가름 : 미상.

113) 어대오름 : 미상.

114) 썰곳 : 조천면 교래리(朝天面橋來里)의 지명.

115) 만젱이거멀 : 덕천리(德泉里)의 굴 이름.

116) 남산거멀 : 덕천리(德泉里)의 굴 이름.

117) 어육돈은못 : 덕천리의 지명?

지미산전¹²⁰⁾ 정시물¹²¹⁾ 와 좌정(坐定)한 저 흐니. 옷 벗은 예즈(女子)가 모욕을 험시니¹²²⁾ 더러와 못쓰겠다.

앉아서 좌우(左右)를 살펴보니 짐녕(金寧) 입산봉(立傘峯)은¹²³⁾ 두 일산(日傘) 싱근듯¹²⁴⁾ 괴살미[猫山岳]는¹²⁵⁾ 영산¹²⁶⁾ 홍산¹²⁷⁾ 불린 듯한다. 아끈드랑쉬¹²⁸⁾ 한드랑쉬 초초일산¹²⁹⁾ 불린 들했다. 웃궤눠기를¹³⁰⁾ 들어가니 우흐로 든 부름[風] 알[下]로 나고, 알로 든 부름 우흐로 나고, 알궤눠길 굽어보니 벨[星] 솜솜 들[月] 솜솜해야 좌정(坐定)을 만하겠다.

좌정을 터를 정하여 두고 사장(射場) 누리돌아 보니 시월동당¹³¹⁾ 과거(科舉) 줄만 흐다. 만민거즈(萬民擧子)덜이 시월동당 과거 볼 만하다. 누무리는¹³²⁾ 궤궤잔잔허여¹³³⁾ 쟁핌은¹³⁴⁾ 몰빨이¹³⁵⁾ 췌여,¹³⁶⁾ 당 올레¹³⁷⁾ 인빨[人足]이 췌여, 식닥빌레¹³⁸⁾ 개중싱¹³⁹⁾ 씨다.¹⁴⁰⁾

망태목¹⁴¹⁾ 천포단¹⁴²⁾ 군막(軍幕)을 둘러치고, 사을[三日] 일퀘간[七日間]을 좌정(坐定)해서 마은으¹⁴³⁾ 융[四十八] 상단골(上丹骨) 서른으¹⁴⁴⁾ 중단골 시물으¹⁴⁵⁾ 하단골 열두 풍문조화[十二風雲造化]를 불러주니, 고례(高麗) 때¹⁴⁶⁾ 심방[神房]은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지리(下達地理)해야.

“소천국 으¹⁴⁷⁾ 숫책 아들[六男]이 옥황(玉皇)의 멩령(命令)을 받아 짐녕리(金寧里) 신당(神堂)으로 상(床)을 받젠 만민백성(萬民百姓)에 풍문조haps네다.”

흐니,

“계멘¹⁴⁸⁾ 어디로 좌정 흐겼습네까? 좌정지(坐定地)를 말씀 흐옵소서.”

“나는 알궤눠기로 좌정 흐겠다.”

“뭣을 잡습네까?

“쉐[牛]도 전머리를 먹고 돛[豚]도 전머리를 먹나.”¹⁴⁹⁾

흐니, 만민백성이 말씀 흐둬.

118) 희연못 : 덕천리, 교래리 등지의 지명인 듯.

119) 화수리 : 위와 같음.

120) 지미산전 : 위와 같음.

121) 정시물 : 구좌면김녕리(舊左面金寧里)의 지명?

122) 험시니 : 하고 있으니.

123) 입산봉(立傘峯) : 금녕리(金寧里)의 악명(岳名).

124) 싱근 듯 : 심은 듯.

125) 괴살미(猫山岳) : 금녕리(金寧里)의 악명.

126) 영산 : 양산의 잘못인 듯.

127) 홍산 : 홍산(紅傘).

128) 아끈드랑쉬 : 구좌면 세화리(舊左面細花里)의 악명(岳名).

129) 초초일산 : 초출 일산(初出日傘).

130) 웃궤눠기 : 구좌읍김녕리(舊左邑金寧里)의 지명.

131) 시월동당 : 서월동당의 잘못? ‘서월’은 서울, ‘동당’은 타악기(打樂器) 소리 ‘동당’.

132) 누무리 : 김녕리(金寧里)의 지명.

133) 궤궤잔잔허여 : 매우 조용하여.

134) 쟁핌 : 김녕리의 지명.

135) 몰빨 : 말발(馬足).

136) 췌여 : 세어.

137) 당올레 : 동네 지명. 당(堂)의 출입로 부근.

138) 식닥빌레 : 김녕리의 지명.

139) 개중싱 : 개짐승.

140) 씨다 : 세다.

141) 망태목 : 금녕리(金寧里)의 지명.

142) 천포단 : 천포(天布), 곧 차일(遮日).

143) 고례 때 : 아득한 옛날의 뜻.

144) 계멘 : 그러면.

145) 먹나 : 먹는다.

“가난한 벽성이 어찌 쉐를 잡아서 위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가호호(家家戶戶)의 돛[豚]을 잡아 위로(慰勞)하겠습니다.”

“그리 허라.”

“한동지(韓同知)를 불러라. 문동지(文同知)를 불러라. 문좌시(文座首)를 불러라.”

알궤(駕)에 좌(座)를 골르고 당반설립과¹⁴⁶⁾ 제청(祭廳)을 잘 출려가지고, 만민(萬民)은 일년일도 (一年一度)에 남도리알에¹⁴⁷⁾ 청룡도리¹⁴⁸⁾ 벽호도리¹⁴⁹⁾ 가문 족바리¹⁵⁰⁾ 흰 족바리¹⁵¹⁾ 뇌발공신¹⁵²⁾ 흑서추물¹⁵³⁾ 벽근근량(百斤斤量) 저울려¹⁵⁴⁾ 수육(熟肉)으로 숟아가지고 열두째 감상(監床)하고 열두 설반(設盤) 물 혼점(一點)도 아니 떨어서 위는 신당(神堂)입니다.

-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가운데 쪽에 좌정한 소천국은 알송당 고부니마루에서 솟아나고, 백주또마누라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납니다. 인간 세상에 탄생하여 천기를 짚어 떠 보니 천상베픽 될 짹이 조선국 제주도 송당리에 탄생하여 사는 듯하니, 백주또가 신랑감을 찾아 제주도로 들어와 송당리를 찾아가서 소천국을 상면하여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5형제를 낳고 여섯째를 포태중인 때, 백주님이 말씀하되,

“소천국님아 아기는 이렇게 많이 탄생하는데 놀아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농사를 지으십시오.”

부인의 말에 소천국은 오붕이굴왓을 돌아보니 볍씨도 아홉 섬지기 피씨도 아홉 섬지기나 되는 넓은 밭이 있으니, 소를 몰고 쟁기를 지워 소천국이 밭을 갑니다.

백주님이 점심을 차리는데,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 이구십팔 열여덟 동이를 차려서 밭 가는 데 가지고 가니,

“점심은 소길마를 덮어두고 내려가십시오.”

백주님은 집으로 돌아오고, 소천국이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가는 선관님아.”

태산절 중이 넘어가다가,

“잡수던 점심이나 있으면 한 술 주십시오. 허기를 면하고 가겠습니다.”

소천국은 먹은들 얼마나 먹으랴 하고,

“그러거든 소길마를 들어 보아라.”

들어 보니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이 있으니, 태산절 중이 다 쓸어먹고 달아나 버립니다.

소천국이 밭을 갈다가 배가 고파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밥은 한 술도 없이 전부 쓸어먹고 달아나 버렸구나. 소천국은 시장하니 할 수 없이 밭을 갈던 소를 때려 죽여 잡아, 찔레나무 적꼬치

146) 당반설립 : 젯상을 방의 벽 높이 선반처럼 매어 놓은 것. 곧 당클. ‘설립’은 설립(設立).

147) 남도리알 : ‘남도리’란 변소에서 변을 볼 때 밟고 앉는 얇고 긴 돌. ‘알’은 아래. 변소는 돼지 사육(飼育)을 겸하는 변소임.

148) 청룡도리 : 청룡(靑龍)듯. 큰 돼지를 일컫는 말.

149) 벽호도리 : 백호(白虎)듯. 큰 돼지를 일컫는 말.

150) 가문 족바리 : 검은 돼지를 일컫는 말.

151) 흰 족바리 : 흰 돼지를 일컫는 말.

152) 뇌발공신 : 사족공신(四足恭神). 뇌발공상과 같음. 네발동물을 제물로 올려 공신(恭神)함의 뜻.

153) 흑서추물 : 흑색출물(黑色出物)? 제물로 올리는 돼지를 일컬음인 듯.

154) 저울려 : 저울에 달아.

에 고기를 끓면서 구워 먹었지만, 허기를 면하지 못하여 묵은 떡밥을 보니 검은 암소가 풀을 뜯고 있으므로 그 놈을 끌어다 잡아 먹으니, 그제야 허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소 머리도 두 개, 소 가죽도 두 개가 됩니다. 소천국은 배때기로 밭을 갈고 있더니, 백주님이 와서 보고,

“아니 소천국님아. 어째서 배때기로 밭을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태산절 중이 넘어가다가 그만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 이구십팔 열여덟 동이를 다 쓸어먹고 달아나 버리니, 할 수 없이 밭을 갈던 소를 잡아 먹고,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 허기를 면했노라.”

백주님이 말씀하되,

“당신의 소를 잡아 먹은 것은 떳떳한 일이나 남의 소를 잡아 먹었으니 소도둑놈이 아닙니까? 오늘부터 살림을 분산합시다.”

백주님은 바람 위로 올라서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로 내려서서, 백주는 당오름에 가 좌정하고 소천국은 알송당 고부니마루에 와 좌정합니다.

소천국이 배운 것은 총질 사냥질을 배웠으므로 총열이 바른 마상총에 귀약통, 남날개를 둘러메고 산천에 올라가서 대각록 소각록 공작 노루 사슴 큰돼지 어린돼지를 많이 잡아 해낭곳굴왓에 사는 정동칼 집의 딸을 소첩으로 삼아서 고기를 삶아 먹고 삽니다.

백주님은 임신했던 아기가 태어나 세살 되니, 걸렛배로 아이를 업고 소천국을 찾으러 해낭골굴왓에 들어가 보니, 움막 속에서 연기가 나는데 바라보니 소천국이 있더라.

백주님이 아기를 부려 놓으니, 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면서 아버지 가슴을 두드리는구나.

“이 자식을 뱉 때에도 일이 글러서 살림이 분산되더니, 태어나도 이런 나쁜 행동을 하니, 죽여야 하되 차마 죽일 수는 없고 동해바다로 띠워 버려라.”

무쇠석갑에 세 살 된 아들을 넣고 자물쇠로 잠가 동해바다로 띠워 버립니다. 용왕국에 들어가서 산호수 가지 위에 무쇠석갑이 걸렸는데, 무쇠석갑에서 풍운조화가 나온다. 든변 난변이 세어지니, 용왕국대왕이 말씀하되,

“큰딸아기 나가 보아라. 든변 난변이 세어지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딸아기 나가 보아라. 든변 난변이 세어지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내딸아기 나가 보아라. 든변 난변이 세어지느냐?”

막내딸아기 나가 보니,

“산호수 가지 위에 무쇠석갑이 걸려 있습니다.”

“큰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싹 못하겠습니다.”

둘째딸아기 내리워라.”

“한 짹 귀도 달싹 못하겠습니다.”

“막내딸아기 내리워라.”

막내딸아기는 번쩍 들어 내려 놓으니,

“큰딸아기 문 열어라.”

못 연다.

“둘째딸아기 문 열어라.”

못 연다.

“막내딸아기 문 열라.”

막내딸아기는 꽃당혜 신은 발로 삼 세번을 돌아가면서 둘러 차니 저절로 설강 열어진다. 옥 같은 도련님이 책을 한 상 가득히 받고 앉아 있구나. 용왕국대왕이 말씀하되,

“어느 국에 사느냐?”

“조선 남방국 제주도에 삽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강남천자국에 국난이 났다 하길래 세변을 막으러 가다가 풍파에 쫓겨서 용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용왕국이 생각하되. 천하명장인 줄 알고,

“큰딸 방으로 드십시오.”

대답이 전혀 없고,

“둘째 딸 방으로 드십시오.”

대답이 전혀 없고,

“막내 딸 방으로 드십시오.”

막내 딸 방으로 들어간다. 막내 딸이 상을 차리되 칠첩반상기에 음식을 차려 들어가 드리니 눈도 거들떠 보지 아니한다.

막내 딸이 말씀하되.

“조선국 장수님아 뭣을 잡수십니까?”

“내 국은 소국이라도 돼지도 전마리를 먹고 소도 전마리를 먹는다.”

아버님께 여쭈니. 용왕국대왕이 말씀하시되,

“내 기구를 갖고서 사위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

날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가니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간다. 용왕국이 생각하니 사위손을 두었다가 용왕국이 망할 듯합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남편을 따라 나가거라.”

그 사이에 유태가 되었는데. 남매같이 두 사람을 무쇠석갑에 들여놓아 물 바깥으로 내띄운다.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 가 무쇠석갑이 걸어져 풍운조화를 부리니. 밤에는 초롱촛불이 등성하고 낮에는 글 읽은 소리가 탱천하여 천자국 안에 풍운조화가 자꾸 일어나 가니. 천자님이 말씀하시되,

“어찌 궁궐에 풍운조화가 많으냐? 하인을 시켜 해변을 돌아보아라.”

“돌아보니 무쇠석갑이 올라왔습니다. 이 무쇠석갑 속에서 풍운조화가 일어납니다.”

“황봉사를 불러라.”

봉사에게 점을 치니. 무쇠문을 열려 하면 천자님이 모대각대를 차리고 향족을 피워 북방을 향해 사배를 드려야 문이 열린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천자님이 모대각대를 차리고 북방사배를 드리니 무쇠문이 열려집니다. 옥 같은 도련님과 아기씨가 앉았거늘,

“어느 국에 삽니까?”

“조선 남방국 제주도에 삽니다.”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마침 그 때 북적이 강성하여 천자국을 치려하는 중인데.

“소장이 여기 온 것은 남북적을 격파하고 세변을 막으러 온 것입니다.”

하니, 천자가 손목을 잡고 궁안으로 모셔 들어가 무쇠투구 갑옷에 언월도 비수금 나무활 보레활 기치창검을 내어 주고 남북적을 쳐 주도록 부탁하니, 억만대병을 거느리고 싸움하러 나갑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머리 둘 돋은 장수를 죽이고, 두번 째 들어가서 머리 셋 돋은 장수를 죽이고, 세번째 들어가서 머리 넷 돋은 장수를 죽이니, 다시는 대항할 장수가 없어 세변을 막읍니다. 천자님이 매우 기뻐하여,

“이런 장수는 천하에 없는 장수로다. 땅 한쪽 물 한쪽을 베어 줄 테니 땅세 국세 받아 먹고 사십시오.”

“그것은 싫습니다.”

“그러면 천금상에 만호후를 봉하리다.”

“그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말하십시오.”

“소장은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관솔을 베어서 전선 한 척을 짓고 산호수, 양식을 한 배 가득 싣고 백만군사를 대동하여 조선국으로 나온다.

경상도라 칠십칠관 전라도라 오십삼관으로 하여, 일제주 이거제 삼남해 사진도 오강화 육완도로 하여 제주로 들어온다.

제주바다로 배를 놓으니, 밀물이 끝나고 마침 썰물을 만나서 소섬 진질깍으로 배를 댔는데, 소섬 좌우에서 작은 배들이 나와 그 배를 끌어다가 소섬 모살내기로 끌어올립니다. 궤눠깃한집이 예물로 와 영기를 세우고 소섬을 둘러 본 후, ‘말과 소만 가두어서 먹일 데로다. 물섬으로 들어가자.’

물섬을 향해 오면서 종달리 두머니개에 와 보니 소금만 하여 팔아 먹을 지경입니다. 붉은작지를 거쳐 한작지로 멀미오름, 징겐이오름, 웃다랑쉬, 알다랑쉬, 비자남곳에 올라서서 천하가 요동하고 지하가 요동하게 방포일성을 지르니,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님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되,

“어찌 이렇게 방포일성이 크게 나느냐?”

하님이 말씀하되,

“세 살 때 죽으라고 무쇠석갑에 넣어 띠운 상전님이 아버지를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에, 이 년, 고약한 년이구나. 그 어간에 무쇠석갑이 다 녹아 없어졌을 텐데 여섯째 아들이 살 아오기가 만무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포일성을 크게 지르며 여섯째 아들이 들어오니, 아버지는 무서워서 알송당 고부니마루로 도망가 죽어 당신으로 좌정하고, 어머님은 공작머리를 짊어지고 겁이 나 도망치다가 웃송당 당오름에 가 죽어 당신으로 좌정하여 정월 열사흘날 대제일을 받아 먹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냥질을 잘 하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니, 여섯째 아들은 각 마을로 각 리마다 통지를 돌려 일류 포수들을 다 불러 사냥을 합디다. 대각록 소각록 공작 노루 사슴 큰돼지 어린돼지를 많이 잡아 아버님께 제를 지내고, 방광오름에 가서 방광을 세번 쳐서 백만군사를 흘으며,

“백만군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아들은 백만군사와 작별하고 한라영산을 구경하러 갑니다. 평앉은 존재로, 매앉은 존재로, 북오

름으로, 체오름으로, 차차 올라 다리앞벵뒤로, 뒷곳으로 알송당으로 웃송당으로 테역장오리로 올라가서 물을 마시고 좌우를 둘러 보니, 과연 거기는 유명한 장수가 날 듯합니다.

“이젠 그만 구경하고 바람 위쪽으로 찾아가자.”

바람 위는 어디인가. 김녕리가 바람 위쪽이로구나.

윗송당으로, 알송당으로, 다리앞벵뒤로, 지레기된밧으로, 벡캐골왓으로, 서리왓으로, 오름새끼로, 한가름으로, 어대오름으로, 씰곳, 만젱이거멀, 남산거멀, 어육돈은못, 희연못, 화수리, 지미산전을 거쳐 정시물로 와 좌정하려는데, 옷 벗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워 못쓰겠다.”

앉아서 좌우를 살펴보니 김녕 입산봉은 두 일산을 세운 듯 하고, 괴살미는 양산 홍산을 불린 듯합니다. 아끈다랑쉬 한다랑쉬는 일산을 펼쳐 놓은 듯합니다. 웃궤꿰기로 들어가니 위로 든 바람 아래로 나가고, 아래로 든 바람 위로 나가고, 알궤꿰기를 굽어 보니 별이 솜솜, 달이 솜솜하여 좌정할 만합니다.

좌정할 터를 정해 두고 사장을 달려 내려가 보니 서울에서 둉당둥당 풍악을 울리게 과거를 줄만하게 좋습니다. 노물이는 괴괴잔잔하게 고요하고, 쟁핌은 말이 많이 다니고, 당올래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식닥빌레는 개짐승이 많이 다닙니다.

소천국 여섯째 아들 궤꿰깃한집은 김녕리를 한 바퀴 둘러본 뒤, 망태목에 차일을 치고 사흘, 이례 동안을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대접하려 오는 자가 없습니다. 궤꿰깃한집은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에 열두 풍운조화를 불러주니, 단골들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걱정합니다. 고려 때 심방은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였기에 단골들은 심방을 불러다 점을 치니,

“소천국 여섯째 아들이 옥황의 명령을 받아 김녕리 신당으로 상을 받으려고 만민백성에 주는 풍운조화입니다.”

하니.

“그리면 어디로 좌정하겠습니까? 좌정지를 말씀하십시오.”

“나는 알궤꿰기로 좌정하겠다.”

“뭣을 잡수십니까?”

“소도 전마리를 먹고 돼지도 전마리를 먹는다.”

하니. 만민백성이 말씀하되,

“가난한 백성이 어찌 소를 잡아서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가호호에서 돼지를 잡아 위하겠습니다.”

“그리하라.”

“한동지를 불러라. 문동지를 불러라. 문좌수를 불러라.”

알궤꿰기에게 자리를 고르고 당클을 설립하고 제청을 잘 차려서 만민은 일년에 한 번 변소의 큰 돼지 검은 돼지 흰 돼지 등을 잡아 백근근량을 서울에 달아 수육으로 삶아서 열 두 뼈를 감상하고 열 두 반기를 물 한 방울도 덜지 않고 올려 위하는 신당입니다.